

사회

'명예 실추' 공직자 자살 신드롬

임상규 총장 이어 김기훈 전남문화산업진흥원장 자살

인건비 횡령 내사에 부담감 느낀 듯

인건비 횡령 등의 의혹이 불거져 경찰 내사 대상에 오른 전남문화산업진흥원 김기훈(46·사진) 원장이 지난 17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 원장은 지난 17일 오전 9시20분께 무안군 삼황읍 남악리 한 아파트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집안에서 갈탄 6~7조각을 피운 흔적과 유리창 틀·방 문을 유리 테이프로 붙여 외부 공기의 유입을 막은 점 등으로 미뤄 김 원장이 자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출신인 김 원장은 통신·전자·컴퓨터 분야 전문가로 2008년 2월부터 전남도 출연기관인 전남문화산업진흥원장(3급 대우)을 맡아왔다. 19일까지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김 원장이 계약직 직원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급여를 주는 등 인건비를 횡령하고 특정업체에 문화산업 지원금을 집행한 뒤 리베이트를 받아 비자금용을 조성한 혐의로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부터 내사를 받자 부담감을 느끼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 하지만 과유치불·방 문을 유리 테이프로 붙여 외부 공기의 유입을 막은 점 등으로 미뤄 김 원장이 자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출신인 김 원장은 통신·전자·컴퓨터 분야 전문가로 2008년 2월부터 전남도 출연기관인 전남문화산업진흥원장(3급 대우)을 맡아왔다. 19일까지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다. 지난 2004년에는 검찰 수사를 받던 안상영 전남부산시장,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 박태영 전 전남지사 등 5명이 잇따라 자살했다.

이 같이 유명인들의 자살은 일반인들에게 자살 풍조를 부추긴다. 2008년 9월과 10월 텔레비전 안재환·최진실이 잇따라 자살한 이후 같은 해 자살자 수는 1만2858명으로 전년대비 684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유명인 극단적 선택 왜? = 전문자들은 실적을 중시하고 끊임없이 경쟁을 부추기는 한국사회 분위기가 어느 정도 지위가 있고 크게 성공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실패에 대한 공포를 더 심하게 느끼고 우울증에 빠지기 쉽다고 설명한다.

사회 고위층의 가장 큰 사회적 자살인 명예가 흔들리는 순간 자살 충동을 느끼기 쉽다는 것이다. 또 일반적으로 자살한 사람에 대해 동정의 눈길을 보내는 분위기도 한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또 유명 인사나 공직자 등의 자살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대개 이들은 유서나 지인에게 남긴 마지막 말을 통해 "자신이 모든 것을 안고 가겠다. 잘못은 내게 있다"고 잘못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수사 등을 통해 직면하게 될 사회적 수모와 답답한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는 것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서부취재본부=김민준기자 jun@

보해양조·임건우 회장 자택 압수수색

보해저축銀 자금 횡령·배임 여부 조사

보해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은행 모기업이자 대주주인 보해양조 본사와 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호경)는 지난 17일 목포시 보해양조 본사와 경기도 용인의 지점, 서울 강남구 임건우 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일부 은행 자금이 보해양조에 불법적으로 흘러간 정황을 포착하고 회사의 회계 자료와 주식거래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저축은행의 모기업이자 대주주인 보해양조와 임 회장 측에 대출금이 흘러갔는지, 보해저축은행 자금을 횡령 또는 배임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보해양조가 자체 자금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해저축은행 자본은 보해양조 40%, 임 회장 27.6% 등 임 회장 측이 75% 이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회사 관계자를 소환하고, 임 회장을 불러 대주주로서 저축은행 부실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이 보해저축은행 임직원,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 대출차주와 브로커, 회계법인에 이어 모기업을 겨냥하면서 이번 수사가 종착지를 향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나원침 (8339) 김장두



축양장서 중국인 남·녀 알몸 숨겨

완도경찰 사망경위 조사

완도의 한 축양장에서 중국인 2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완도경찰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6시30분께 완도군 군외면 신학리 한 축양장 직원 숙소 화장실에서 이 공장에서 일하는 중국인 구모(54·조선족) 등 남·여 2명이 알몸 상태

로 누운 채 숨져있는 것을 축양장 주인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구씨는 이 축양장에서 20일 전부터 일해 왔으며 숨진 여성은 구씨의 여자 친구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신에서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주변 인물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아내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도 의사 징역형

광주지법, 징역 8개월 선고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9일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혐의(감금치상 등)로 기소된 의사 김모(46)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자신의 아내를 때리거나 정신병원에 데려가려고 감금한 행위는 부부간의 오랜 불화를 감안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12일 정오께 광

주시 동구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129 응급환자 이송단에 전화해 출동한 응급차량에 아내를 강제로 태워 국립 나주병원까지 옮기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아내가 병원 치료를 받은 점을 이용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씨는 레이저 기기를 구입해 의뢰자가 판매사원에게 환자의 점을 제거하도록 하고 20대 산모의 부탁을 받고 낙태를 해 준 혐의도 받았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 문흥동 아파트서

여고생 2명 투신 자살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여고생 2명이 투신자살했다.

지난 18일 밤 11시께 광주시 북구 문흥동 한 아파트 1층 화단에 광주 모 여고 1년 A(17)·B(17) 등 2명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숨져있는 것을 이 아파트 경비원 이모(65)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이 아파트 옥상에서는 숨진 A·B양의 가방과 신발, 손수건 등이 발견됐다. 손수건에는 "학교 생활에 부담을 느낀다. 미안하다"라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나주호서 물놀이 40대 익사

19일 오후 2시10분께 나주시 다도면 나주호에서 물놀이를 하던 A(44)씨가 실종됐다가 3시간여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당시 A씨는 상의를 벗고 수영을 하다가 미처 물 밖으로 빠져 나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광주호 독 높이기' 찬반 몸싸움
계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광주호 독 높이기 저지연대' 주관으로 지난 18일 광주시 북구 충효동 광주호 생태공원 광장에서 열린 '작은 음악회'에서 독높이기 사업을 찬성하는 마을 주민 10여명이 공연 중단을 요구하며 저지연대 측과 거칠

'불량 법씨' 불똥 여행업계로

모내기 다시 하느라 농촌관광객 독 여행사 울상·관광버스업계도 타격

최근 '불량 법씨' 파동으로 광주·전남 등 전국의 농가들이 큰 피해를 겪은 가운데 여행업계에까지 불똥이 튀어 울상을 짓고 있다.

평소 같았으면 상당수 농가가 매년 모내기 직후 잠깐 틈을 내 즐겼던 '뒤꽂이 여행 특수'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19일 광주·전남지역 여행업계에 따르면 농가들이 매년 모내기철이 지나면 1박2일 등의 짧은 일정으로 떠나던 관광이 평년에 비해 절반 가량 줄었다.

지난해까지 광주·전남 등 전국의 여행업계는 매년 5~6월 사이

모내기를 마무리한 농민들이 마을 단위로 한꺼번에 짝막한 여행을 위해 국내 온천이나 중국 등으로 떠나면서 특수를 누려왔다.

그러나 올해 정부 보급종인 '호 품벼'가 발아지연 등으로 파동이 일자 농민들이 모내기를 다시 하거나, 농사 자체를 포기하면서 자연스레 여행을 떠나는 농민들도 줄고 있다.

광주에서 벼농사를 짓는 김모(66)씨는 "매년 모내기가 끝나면 동네 주민들과 함께 가까운 곳으로 관광을 떠났는데, 올해는 다시 모내기를 하게 돼 여행을 포기했

다"고 말했다.

이처럼 불량 법씨 파동이 '여행 취소'로 이어지면서 여행사는 물론 여행사와 연계해 농촌지역 관광객들을 태워 나르던 관광버스 업계도 운영에 타격을 입고 있다.

광주 모 여행사 관계자는 "예년에는 대부분의 농가가 모내기를 마친 뒤 각 동네 주민들이 모여 여행을 떠났는데, 올해는 줄줄이 취소했다"면서 "불량 법씨로 인한 파장이 여행 업계까지 영향을 줄지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며 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야구장 압표상 9명 적발 광주북부경찰

광주북부경찰은 19일 야구장 주변에서 압표를 관 최모(43)씨 등 압표상 9명을 붙잡아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심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 18일 오후 6시께 광주시 북구 운암동 무등야구장 주변에서 기아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 간의 프로야구 경기를 보러온 관람객들을 상대로 한 장당 7000원짜리 입장권을 1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압표상 단속에 나서 9명을 적발하고 입장권 24장과 현금 11만9000원을 증거품으로 압수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과음후 실족사 노무 직원 업무상 재해"

광주지법 원고 승소 판결

노무 관리를 위해 자정까지 술자리를 갖다가 실족해 숨진 대기직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정경현)는 19일 여수산단 내 모 대기직 직원 김모(사망 당시 40세)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회사 직원과 가진 면담은 업무와 무관하지 않고, 면담 중 과음이 주원인이 돼 실족사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일 자정께 여수시한 호프집에서 같은 회사 직원과 술을 마시던 중 바람을 쐬려 나갔다가 인도 옆 난간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김씨 아내의 남편이 노무 관리 차원에서 술을 마시다가 사고를 당했다며 유족급여 등 신청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관리비 못내 단전하자 '전기 도둑질'

○30대 원룸 세입자가 집주인 이 관리비를 내지 않는다며 전기를 차단해버리자 몰래 차단장치를 제거해 전기를 훔쳐 쓰다가 경찰에 달미.

○19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김모(36)씨는 지난 1월 6일 자신이 세들어 살고 있는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한 오피스텔 7층에 설치된 전기 차단장치에서 차단장치를 없애 뒤 5개월 동안 190만원 상당의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것.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수십만원의 관리비를 내지 못해 집주인(53)이 전기를 끊어버리자 함가에 직접 공구를 들고 차단장치를 제거한 것으로 판명.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14만 합격자가 말한다

2012 학년도 대학편입은 김영과 함께

상위권 대학편입대비, 자타공인 대한민국 No.1
편입영어(이론과정/문제풀이)

자연계열 편입합격의 열쇠, 지방 유일 실강의!
편입수학(미, 적분과정/선형대수)

전남대 편입 Hot Point!, 전남대 맞춤형 Teps-
Teps 대개강 (Teps + 면접대비)

편입합격자 10명중 7명은 김영출신!!
기여편이하인
모인보구권
광주 동부경찰서 뒤 (062) 227-8088
www.kimyoung.co.kr 개강 : 7월 1일